

## ‘주자학적 접근법’ 시론(試論)

북한 아동문학 연구방법론

마성은(馬聖恩)\*

본고는 북한 체제, 나아가 북한 아동문학을 읽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주자학적 접근법’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는 편견 없이 북한의 실상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조선왕조 작품이 주자학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듯이, 북한 작품은 김일성-김정일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왕조 작품을 평가할 때 주자학적 가치관의 반영을 전제하고 다른 특징에 주목하듯이, 북한 작품을 평가할 때에도 김일성-김정일주의적 가치관·당과 국가 정책의 반영을 전제하고 다른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조선왕조 작품을 연구하는 방법이 다양하듯이, 북한 작품을 연구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 작품의 수령형상 표현에 주목하거나, 작품에 나타난 수령의 특성을 고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수령형상 표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외의 요소들에 주목하여 연구하면 된다. 같은 주제의 작품들 중에서도 구성이나 표현에 따라 문학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작품이 당과 국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이나 상상력에 주목하여 연구하면 작품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주자학적 접근법, 북한 아동문학, 연구방법론, 북한 체제, 통일시대 아동문학

\* 저장사범대학 인문대학(浙江师范大学人文学院) 교수.

## 1. 북한 아동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본 연구자는 식민지 시대(일제강점기)·분단시대·통일시대라는 이세철의 민족아동문학 시대분류<sup>1)</sup>에 동의하면서도, 다시 분단시대를 반공주의 시대와 민주화 시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민족아동문학 정전에 관한 반공주의 시대의 논의, 그것을 비판한 민주화 시대의 논의가 모두 북한 아동문학을 제외한 반쪽의 논의였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통일시대 아동문학은 남북 아동문학을 아우르는 관점을 요구하며, 어떤 편견이나 사상·이념 등에 매몰되지 않은 채 북한 아동문학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다.<sup>2)</sup>

본 연구자는 북한 아동문학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페터-크리스티안 루츠(Peter-Christian Ludz, 1931~1979), 클라우스 폰 바이메(Klaus von Beyme, 1934~), 송두울(宋斗律, 1944~) 등의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왔다. 그런데 사회주의 이념을 전제하고, 이 이념이 정치·문화·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는<sup>3)</sup> ‘내재적 접근법’을 어렵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자본·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살며 그것에 익숙해진 이는

1) 이세철, 『남북아동문학연구』(서울: 박이정, 2007), 126쪽.

2) 마성은, “북측 동시와 2018년 4월전원회의,”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17집(2019); 마성은, “북측의 변화가 반영된 동요·동시: 2018년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64집(2019); 마성은,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가능성: 「토끼와 원숭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2018); 마성은,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가능성 (2): 1920년대 동요·동시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4호(2019).

3)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는 끝났는가』(서울: 당대, 1995), 212쪽.

사회주의 체제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북한 체제, 나아가 북한 아동문학을 읽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북한 연구방법론에 관한 검토는 강정구<sup>4)</sup>·강정인<sup>5)</sup>·서동만<sup>6)</sup>·송두율<sup>7)</sup>·이종석<sup>8)</sup>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본 연구자는 김성수<sup>9)</sup>·남원진<sup>10)</sup> 등의 논의를 북한 아동문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하였다.<sup>11)</sup> 비교적 근래에 북한 연구방법론을 검토한 권현익·정병호는 근래 북한 관련 문헌에서 ‘신유교국가’라는 개념이 널리 언급된다고 지적하였다.<sup>12)</sup> ‘신유교국가’라는 개념은 근래에 나온 것이지만, 이미 1977년부터 이문웅이 같은 인식을 제시한 바 있다.<sup>13)</sup> 그는 스스로 주자(朱子, 1130~1200)가 꿈꾸었던 이상사회인 ‘가족국가’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북한을 “우상숭배”·“개인은 당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무장한 공산체제의 한 노예로 전락” 같은 언급으로 깎아내렸다.<sup>14)</sup> 이는 같은 글에서 “유교문화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 
- 4)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서울: 당대, 1996).
  - 5) 강정인, “북한 연구방법론: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권(1993).
  - 6)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19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현대북한연구』, 창간호(1998).
  - 7)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
  - 8) 이종석, “북한 연구방법론,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 통권 10호(1990).
  - 9)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서울: 책세상, 2001).
  - 10)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서울: 경진, 2011).
  - 11) 마성은, “북한 아동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 『현대북한연구』, 제15권 2호(2012).
  - 12)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파주: 창비, 2013), 36쪽.
  - 13) 이문웅, 『북한 정치문화의 형성과 그 특징』(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7).
  - 14) 이문웅,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전통유교문화: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엮음,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마산: 경남대

었다”<sup>15)</sup>고 언급한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적 비일관성은 그의 글에서 중국 주자학과 조선 주자학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오직 미국과 일본의 단면적 논의에 기대어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의 인식은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 1913~2008)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한 서방중심주의적 인식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에메 세제르는 성향이 각기 다른 문명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6)</sup>

강진웅도 이문웅처럼 유교적 ‘가족국가론’을,<sup>17)</sup> 김성보는 “유교적 전통을 담고 있는 유기체적 가족국가관”<sup>18)</sup>을 주장하였다. 이우영<sup>19)</sup>·이종훈<sup>20)</sup>·이현경<sup>21)</sup>·최재현<sup>22)</sup>·황성모<sup>23)</sup> 등 또한 ‘유교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김성보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현실 체제·사상과 전통의 상관성을 단면적으로 이해하여 왔으며,

학교 출판부, 1996), 158-160쪽.

15) 이문웅, 위의 책, 137쪽.

16)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 이석호 옮김(서울: 그린비, 2011), 11쪽.

17) 강진웅, “북한의 가족국가 체제의 형성: 국가와 가족, 유교문화의 정치적 변용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6호(2001).

18) 김성보, “북한의 주체사상·유일체제와 유교적 전통의 상호관계,” 『사학연구』, 제61호(2000), 252쪽(인용자가 띄어쓰기를 바로잡음).

19)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북한영화분석을 중심으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20) 이종훈, “북한 도덕교육에서 유교윤리의 비판과 수용,” 『통일전략』, 제8권 1호(2008).

21) 이현경,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를 위한 유교적 정치사회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8집(2002).

22) 최재현, “북한사회이념속의 전통적 요소: 김일성저작집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14권(1988).

23) 황성모, “유교적 측면에서의 충효사상,” 『북한』, 통권 제78호(1978).

日本 학계의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바이지만 한국의 역사적 맥락 위에서 이 문제를 고찰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sup>24)</sup>고 비판하였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 위에서 이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는 태도는 미국과 일본의 단면적 논의에 기대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였다. 그런데 ‘유교적 접근법’은 자칫 북한을 근대 미달의 국가로 비난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유교적 접근법’이나 ‘신유교국가’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연구 가운데 북한의 긍정적인 면모를 발견하려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키는 경우조차 접하기 어렵다. 주자학에 관한 “잘못된 통념”이 아직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교적 접근법’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유교는 4백여 년 동안 국교로서 오늘날에도 고등 계급의 신앙을 지배하나, 이 또한 철학적 방면은 송나라 유학자의 성리학을 근본으로 연구할 뿐이다. 이른바 조선 명현名賢의 모든 학설은 오로지 송유의 구투를 벗어 나지 못한 것이다. 조선 유학사는 저급한 주자학사라고 할 것이다.<sup>25)</sup>

조선 시대 선조 대 이래의 정치사는 곧 당쟁사로서, (...중략...) 양반 계급이 이와 같이 당파심이 격렬한 까닭으로, 이에 따라서 신분을 구분하는 계급에도 또한 당파가 생겨나서 상민 이하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파심이 심하다.<sup>26)</sup>

24) 김성보, “북한의 주체사상·유일체제와 유교적 전통의 상호관계,” 234~235쪽(인용자가 띄어쓰기와 오타를 바로잡음).

25)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구인모 옮김(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77쪽.

26) 다카하시 도루, 위의 책, 89쪽.

위의 인용문들은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의 『조센징(朝鮮人)』(1921)에 언급된 내용이다. 이 책이 조선총독부에서 출간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내용은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조선민족의 민족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일제는 조선왕조 지배 이념이었던 주자학과 그에 기반을 둔 사대와 봉당으로 조선왕조가 스스로 망하였다는 그릇된 인식을 날조하였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일제의 끈질긴 교육과 선전을 통하여 통념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주자학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sup>27)</sup>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을 연구한다면 상술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니얼 A. 벨(Daniel A. Bell)의 연구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가적 접근법’<sup>28)</sup>이 무척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는

---

27) 김기주, “다카하시 도오루의 조선 유학관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논의,” 『오늘의 동양사상』, 제13호(2005);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서울: 유니스토리, 2013); 유승원, 『사대부시대의 사회사』(서울: 역사비평사, 2020); 이성환, “조선 총독부의 지배 정책과 다카하시 도오루,” 『오늘의 동양사상』, 제13호(2005); 이재룡, “조선 후기 봉당정치의 역사적 의의: 정당정치에의 원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동양사회사상』, 제19집(2009); 이태진, “당과성론 비판,” 『한국사 시민강좌』, 제1집(1987); 이태진·김백철 엮음,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상·하(서울: 태학사, 2011); 이태진 엮음,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서울: 범조사, 1986); 이현출, “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과 현대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2002); 이형성, “다카하시 도오루의 조선 성리학 연구 영향과 새로운 모색,” 『오늘의 동양사상』, 제13호(2005); 정옥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서울: 현암사, 2006); 정옥자, 『조선시대 문화사』 상·하(서울: 일지사, 2007); 정옥자, 『조선후기 문학사상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서울: 일지사, 2010); 정옥자, 『지식기반 문화대국 조선』(파주: 들베개, 2012); 최영성, “다카하시 도오루의 한국 유학관 비판,” 『오늘의 동양사상』, 제13호(2005).

28) 위에서 언급한 ‘유교적 접근법’과 ‘유가적 접근법’을 구분한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유가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중국을 유가적 현능(賢能) 체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29)</sup> 또한 그는 ‘유교적 접근법’이나 ‘신유교국가’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연구자들이 보통 사회주의 체제에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과 뚜렷이 구분되는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내가 희망하는 정치의 세계는 이런 모습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의 모든 층위 지도자를 선거로 뽑고, 현능주의 사회에서는 최고 층위 지도자들을 고시로 임용해 수십 년에 걸친 훈련을 통해 키워낸다. 양쪽 체제 모두 자기네 약점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할 일을 잘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정부의 임무란 당연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인데, 그 인민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현능주의의 좋은 점을 배움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향상시키고, 현능주의 사회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배합함으로써 현능주의 체제를 발전시킨다.

어느 쪽 체제가 우월하다는 주장은 의미를 잃는다. 양쪽 체제는 서로 다른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으면서 상대방 체제의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한다. (...중략...) 가치의 다양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받는 세상에서, 각자의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정치체제의 다양성은 세상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조건이 될 것이다.<sup>30)</sup>

대니얼 A. 벨은 자본-민주주의 체제와 현능 체제 가운데 어느 쪽 체제가 우월하다는 주장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양쪽 체제

---

29) 한국에서 meritocracy는 보통 ‘능력주의’로 번역되지만,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현능’으로 번역하였다. 자본-민주주의에서는 능력만을 강조하지만, 유가에서는 능력과 품성을 모두 갖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국어 번역본 출간 이후에 나온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meritocracy를 ‘현능주의’로 번역하였는데, 역자가 그 이유를 밝혀 두었다. 대니얼 A. 벨(Daniel A. Bell),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김기협 옮김(과주: 서해문집, 2017), 14쪽.

30) 대니얼 A. 벨, 위의 책, 385쪽.

는 서로 다른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통일시대 북한 연구 역시 이러한 사고방식을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남한과 중국이 “현능주의의 유산으로 인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북한이 오늘날 세계에서 현능정치와 가장 상관없는 세습 독재 국가라고 주장하였다.<sup>31)</sup> 하지만 북한 또한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유권자가 선출하지 않고 집권당이 선별하는 만큼, 유가적 현능 체제로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의 이론은 낡은 ‘전체주의설’·‘산업사회론에 근거한 체제 비교론’ 등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편견 없이 사회주의 체제의 실상을 연구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는 유가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을 유가적 현능 체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조선 주자학에 관한 이해는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에 관하여서는 기존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그의 연구방법론을 참고하되 조선 주자학에 관한 이해를 더하여, ‘주자학적 접근법’이 북한을 연구하는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논할 것이다.

## 2. ‘주자학적 접근법’으로 읽는 북한 체제

공자(孔子, 공원전 551~공원전 479)가 ‘정명(正名)’을 우선시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sup>32)</sup> ‘주자학적 접근법’으로 북한 체제를 읽기에 앞서,

31) 대니얼 A. 벨, 위의 책, 401쪽.

32) 『논어』, 유교문화연구소 옮김(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198~199, 413~414, 437~440쪽.

‘주자학적 접근법’이라는 명칭부터 논해야 할 것이다. 공자·맹자(孟子, 약 공원전 372~공원전 289)를 계승하는 학문을 유학(儒學)이라 하는데, 주자가 집대성한 유학을 주자학(朱子學)이라 한다. 이후 주자학의 종교적 측면이 강조되며 유교(儒敎)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유학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파는 유가(儒家)라 칭한다. 유학은 초기부터 실천철학이자 정치사상이었다. 그러나 이를 철학·정치·문학·음악·미술 등 전 분야에 적용되는 이념으로 정립하여,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은 주자학이었다. 이러한 주자학의 특징은 맑스레닌주의와 유사하다. 맑스주의는 초기부터 실천철학이자 정치사상이었다. 그러나 이를 전 분야에 적용되는 이념으로 정립하여,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은 맑스레닌주의였다.

주자학은 남송(南宋, 1127~1276)에서 정립되어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남송은 통일왕조가 아니었으며, 남송 이후 통일왕조인 원조(元朝, 1271~1368)는 소수민족인 명구족(蒙古族)이 건립한 왕조였다. 원조는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지만, 주자학에 기반을 둔 왕조는 아니었다. 원조 이후 통일왕조인 명조(明朝, 1368~1644)는 한족(漢族)이 건립한 왕조였으나, 주자학에 기반을 둔 왕조를 이루기 위하여 왕조를 교체한 것은 아니었다. 명조도 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였으나, 심학(心學)이 유학의 한 학파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곧 천하(天下)로 여겨질 정도로 국토가 광활하고 민족이 다양한 데에다 인구도 무척 많아서, 온 사회를 주자학화하기 어려웠다. 대리국(大理國, 937~1253)·서하(西夏, 1038~1227)·금조(金朝, 1115~1234)·서요(西遼, 1124~1218)·남송·동요(東遼, 1213~1269)·동하(東夏, 1215~1233)·후요(後遼, 1216~1219)→원조→명조로 이어지는 잦은 왕조 교체 역시 주자학에 기반을 둔 왕조를 이루기 어렵게 하였다.

반면에 조선왕조는 주자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하는 왕조를 이루기 위하여, 왕조를 교체하고 새 왕조를 건립한 경우였다. 태종 이방원(太宗 李芳遠, 1367~1422)·문충공 조준(文忠公 趙浚, 1346~1405)·문충공 권근(文忠公 權近, 1352~1409) 등의 주자학자들은 군 지휘관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 1335~1408)를 옹립하여 새 왕조를 건립하기로 하고, 그의 군대로 고려왕조를 타도하였다. 주자학자들이 혁명조직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북한도 군 지휘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맑스레닌주의 혁명조직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국가를 건설하였다.

주자가 편찬한 『소학(小學)』은 우선 아동수신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저 아동교육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주자학의 목표는 실천철학이나 정치사상을 넘어, 모든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규범이자 전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었다. 유학의 가르침을 쉽게 정리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규범으로 확립한 『소학』은 주자학의 지향을 압축하고 있었다. 『소학』은 명조에 이르러 비로소 모든 사람이 철저히 해야 할 함양 학습서라는 위상을 명확히 정립하였다.<sup>33)</sup> 문성공 이이(文成公 李珥, 1536~1584)는 1575년 『성학집요(聖學輯要)』·1577년 『격몽요결(擊蒙要訣)』을 편찬하는데, 이는 조선 특색에 따라 『대학(大學)』·『소학(小學)』을 각각 변용한 것이었다. 주자학의 지향을 압축하고 있는 『대학』·『소학』을 조선 특색에 따라 변용하였다는 것은 조선 주자학의 정립을 상징한다. 사림(士林)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학파(學派)는 당파(黨派)의 성격도 갖게 되었다. 이이를 계승한 서인당(西人黨)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정권 주도권을 장

33) 진원, “주자의 소학론과 한국·중국에서의 변용”(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6~97쪽.

약하였다. 이후 서인당은 노론당(老論黨)·소론당(少論黨)으로 분당되는데, 영조 재위 때부터 문정공 송시열(文正公 宋時烈, 1607~1689)을 계승한 노론당의 일당전제(一黨專制)가 시작되었다.

송시열은 12세에 ‘주자는 후세의 공자요, 이이는 후세의 주자’라는 부친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 일생을 이이를 존송하고 주자를 신임하였다.<sup>34)</sup> 송시열은 금조에 맞서 척화론(斥和論)과 복수론(復讐論)을 편 주자의 모범을 따라, 청조(淸朝, 1636~1912)에 맞서 송명배청론(崇明排淸論)과 북벌론(北伐論)을 폈다.<sup>35)</sup> 명조가 청조로 교체된 상황에서 송명배청론은 조선왕조가 명조를 계승하여 중화(中華)가 되는 조선 중화사상의 이론 근거였다. 조선 중화사상의 정립으로 정권 정통성을 확고히 한 노론당은 전국에 향교(鄕校)·서원(書院)·서당(書堂)·사우(祠宇)·사당(祠堂)을 설치하여 온 사회를 주자학화하려 하였다. 선비 군주로 유명한 정조(正祖, 1752~1800)는 세손 시절부터 유학의 정통이 공자→주자→송시열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sup>36)</sup> 재위 말년에는 주자와 송시열을 동일시하며 송시열을 폄훼하는 것은 주자를 폄훼하는 것이라 하였다.<sup>37)</sup> 정조는 송시열의 뜻에 따라 온 사회를 주자학화하고 있는 조선왕조가 중화라 자신하였으며, 이와 같은 자신감으로 1786년에는 청조에서 서적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sup>38)</sup> 조선 중화사상이 “‘내 문화가 최고’라는 문화자존의식을 고양”한 것이다.<sup>39)</sup>

---

34) 오석원, “우암 송시열의 의리사상,”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3집(2008), 64쪽.

35) 오석원, 위의 글, 77쪽.

36) 유덕상, “정조의 송시열 추송(追崇) 연구”(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2쪽.

37) 유덕상, 위의 글, 27쪽.

38) 정옥자, “정조와 정조대 제반정책,” 『서울학연구』, 제51호(2013), 14쪽.

39) 정옥자, 위의 글, 2쪽.

이이가 중국 주자학을 조선 특색에 따라 변용하여 조선 주자학을 정립한 것처럼,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특색에 따라 변용하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 송시열이 조선왕조에서 온 사회를 주자학화하려 하였던 것처럼, 1974년 김정일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도록 하였다. 김일성주의에 따라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국가의 수령·인민의 아버지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충과 효를 다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을 지속하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싸워나가는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sup>40)</sup>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우리 민족 재생의 은인이시며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마련하여주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은 조선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sup>41)</sup>

주지하다시피 충과 효는 주자학의 핵심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인민의 아버지이며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곧 효도라는 사고방식은, 주자학에서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

40)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1974년 2월 19일), 『김정일전집』, 제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380쪽.

41)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87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58쪽.

것을 동일시했던 것과 흡사하다. 더 나아가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집대성하고, 철학·정치·문학·음악·미술 등 전 분야에 적용되는 이념으로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주의는 북한에서 모든 인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규범이자 전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改革開放)을 시작하였고, 소련은 1985년부터 페레스트로이카(перестройка)를 도입하였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이 사회주의 정통으로부터 이탈하였다 판단하고,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는 조선민족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하였다.<sup>42)</sup> 이는 조선왕조에서 조선 중화사상이 정립된 맥락과 흡사하다.

김일성 사망 이후 주체사상을 집대성하고 김일성주의를 정립한 김정일이 수령이 되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김정은이 수령이 되어,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였다. 김일성 가문은 ‘만경대가문’으로, 김일성 혈통은 ‘백두혈통’으로 지칭된다. 만경대가문의 백두혈통이 대를 이어 수령이 되는 것은 조선왕조의 왕가처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 수령들은 모두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규정된다. 대를 이어 학자 군주가 통치하고, 백성은 군주를 아버지처럼 여기며 충성과 효도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주자가 꿈꾼 대동사회의 모습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을 유교적 ‘가족국가’나 ‘신유교국가’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하는 ‘주자학적 접근법’의 목적

---

42)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89년 12월 28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은 북한을 ‘주자학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 주자학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주자학과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엄연히 다른 이념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철학에서는 주자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 역사관에서는 조선왕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자학과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동일시하거나, 조선왕조와 북한을 동일시하는 것은 학문적 오류일 뿐이다. 다만 이 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북한에서 주자학적 요소를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주자학적 접근법’이 무척 유용한 북한 연구방법론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즉 ‘주자학적 접근법’은 편견 없이 북한의 실상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 3. 주자학적 문학과 주체아동문학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며, 인간의 생각 역시 그 속에 존재한다. 아무리 다른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여 작품을 창작한다 하더라도, 그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며 그것의 제약을 받는다. 작가는 자신이 존재하는 시대와 체제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다른 시대·다른 체제의 작품을 연구할 때, 연구자가 사는 시대·연구자가 사는 체제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면 작품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 조선왕조의 작품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작품은 그 체제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자는 마땅히 이를 전제로 해야 하며, 자신의 기준에 따라 독단적으로 다른 시대·다른 체제의 작품이 갖는 의의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의 국가 통치 이념은 주자학이었다. 주자학적 가치관에 따라 살고자 하였던 조선왕조의 문인들이 주자학적 가치관에 따라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유학적 문학론에서 “문학은 온 세상을 최적의 개명 상태로 들어 올리려는 핵심적 배움인 동시에 그 도심道心을 최고의 상태로 표현한 문장을 뜻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sup>43)</sup>이었다. 유학적 문학론을 계승하는 주자학적 문학론은 주자가 강조한 ‘도문일치(道文一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문학은 도학(주자학)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주자학이 문학의 근본이고 문학은 주자학의 지엽이라는 ‘도본문말(道本文末)’을 원칙으로 하는 문학론이다. 주자학적 문학론에 따르면 주자학적 가치관이 들어 있지 않은 문학은 문학이 아니다.<sup>44)</sup> 문학이 주자학적 가치관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지 않고, 미사여구를 지어내는 데 그친다면 잡기(雜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에서는 주자학적 문학론에 따라 임금에 관한 충성을 작품에 담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의 작품에는 ‘역군은(亦君恩)’ 표현이 공식처럼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역군은’이란 고전문학에서 충군(忠君)과 연군(戀君)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관습적 표현이다. 대체로 자연이나 귀거래(歸去來)와 관련한 진술 뒤에 ‘역군은’이라는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전하의 성은(聖恩)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명하는 것이다.<sup>45)</sup> 이러한 공식이 지금의 독자들

43) 최원식, 『문학』(서울: 소화, 2012), 84쪽.

44) 이상하, “관도·제도·도문일치의 상호관계 및 개념·성격 재고,” 『한국한문학연구』, 제40집(2007), 7~13쪽.

45) 최홍원, “역군은(亦君恩) 표현과 경험의 세계: 관념적 표현의 교육적 자질에 대한 소고,” 『고전문학과 교육』, 제16집(2008), 118~119쪽.

에게는 “외재적 목적을 위해 도구화되는 문학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sup>46)</sup>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오해는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고전 전반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등과 관련되며, 자칫 고전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sup>47)</sup>는 비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의 작품이 주자학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역군은’ 표현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것 때문에 작품의 가치와 의의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이는 조선왕조의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의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와 정철(鄭澈, 1536~1593)의 「관동별곡(關東別曲)」·「사미인곡(思美人曲)」·「속미인곡(續美人曲)」 등의 작품들을 민족문학의 고전으로 평가하며,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의 작품이 주자학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듯이, 북한의 작품은 김일성-김정일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왕조의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 ‘역군은’ 표현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것 때문에 작품의 가치와 의의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듯이, 북한의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 김일성-김정일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 표현·당과 국가의 정책을 반영한 표현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것 때문에 작품의 가치와 의의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역군은’ 표현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조선왕조의 작품을 연구할 때

---

46) 최홍원, 위의 글, 121쪽.

47) 최홍원, 위의 글, 122쪽.

에는 ‘역군은’ 표현 이외의 요소들에 주목하는 방법도 있고,<sup>48)</sup> ‘역군은’ 표현에 주목하거나<sup>49)</sup>, 더 나아가 작품에 나타난 군주의 특성을 고찰하는 방법도 있다.<sup>50)</sup> 또한 중국 작품과 비교 연구하거나,<sup>51)</sup> 다른 시대·다른 갈래의 작품과 비교 연구하는 방법도 있다.<sup>52)</sup> ‘역군은’ 표현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조선왕조의 작품을 연구하는 방법이 이처럼 다양하듯이, 김일성-김정일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 표현·당과 국가의 정책을 반영한 표현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북한의 작품을 연구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작품의 수령형상 표현에 주목하거나, 작품에 나타난 수령의 특성을 고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체제 차이 때문에 수령형상 표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령형

- 
- 48) 김성기, “사대부 가사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 『한글』, 통권 214호(1991); 양희찬, “맹사성 <강호사시>의 짜임새,” 『시조학논총』, 제21집(2004); 양희철, “<강호사시>와 <사시>의 결속과 구조,” 『청대학술논집』, 2015년도 특집호(2015); 윤인현, “송강 정철의 한시에 나타난 용사와 접화,” 『대동한문학』, 제42집(2015); 윤인현, “송강 정철의 한시에 나타난 작법과 유자의 자연관,” 『한국고전연구』, 제31집(2015); 이현자, “사시가계 연시조에 나타난 강호자연 인식,” 『시조학논총』, 제17집(2001); 임주탁, “조선시대 사족층의 시조와 일상성 담론,” 『한국시가연구』, 제29집(2010); 전재강,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 『시조학논총』, 제21집(2004); 조성래, “사시가계 시조의 표현문제: 강호사시가와 사시가,” 『인문과학논집』, 제23집(2001).
- 49) 김상진, “시조에 나타난 ‘임’을 부르는 목소리,” 『우리문학연구』, 제30집(2010); 고순희, “18세기 정치현실과 가사문학: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78집(2002); 최현재,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에 나타난 연군의식 비교 고찰,” 『우리말글』, 48집(2010).
- 50) 고영화, “송강 시가에 나타난 군주의 특성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4권 4호(2011).
- 51) 최상은, “한중 연군문학 비교 연구: 굴원의 <이소>와 정철의 <사미인곡>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29집(2010).
- 52) 김상진, “사시가계 시조의 맥락과 노·찾·사의 <사계>: 맹사성의 <강호사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48집(2018).

상 표현을 ‘역군은’ 표현처럼 다른 체제에서 비롯된 공식으로 보고, 이외의 요소들에 주목하여 연구하면 된다. 수령형상 표현·당과 국가의 정책을 반영한 표현 때문에 작품 전체의 가치와 의의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린다면, 북한 작품을 연구하는 의의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 아동문학과 마주하고 앉았을 때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차단한다.

동요·동시는 정치적 사상·이념에 의해 아주 깊이 침윤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동요·동시가 예술적으로 가장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이와 대조적으로 동화는 정치적 사상·이념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 있는 양식이다.<sup>53)</sup>

이재철은 북한 동요·동시가 “정치적 사상·이념에 의해 아주 깊이 침윤되어” 있고, 이는 예술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화는 정치적 사상·이념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 있는 양식”이라면서, 작품이 정치적 사상·이념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사상·이념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을 수 있는 작품은 북한은 물론 어디에도 없다. 두전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아동은 현실과 동떨어진 특수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사회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성을 제거한 이른바 순수 아동문학은 아동에 대한 그릇

---

53) 이재철, 『남북아동문학연구』, 233~234쪽.

된 관념이 빚어낸 산물일 뿐이다.<sup>54)</sup>

남한 작품 역시 남한의 정치적 사상·이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자본·민주주의 체제의 작품이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재철이 “누 천년 한 민족으로 지내온 오랜 과거”와 “민족문학”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sup>55)</sup> 작품의 정치적 사상·이념 반영을 예술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정치적 사상·이념을 직접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조선왕조의 작품은 민족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대 작품임을 전제로 조선왕조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처럼, 다른 체제 작품임을 전제로 북한의 작품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다른 시대·다른 체제의 정치적 사상·이념을 반영하고 있어도, 모두 우리 민족문학의 일부라는 전제가 중요하다.

월북 직후 무사상성으로 비판되던 윤복진은 김일성에 대한 송가(頌歌)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그런데 그가 북한에서 발표한 천편일률적인 작품에서 ‘김일성 원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넣어보면 남한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했을 때 열과 성을 다해 부르던 찬송가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고통치자에 대한 절대적 헌사는 봉건시대의 ‘역군은(亦君恩)’식 발상이지 종교적 발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sup>56)</sup>

그가(윤복진-인용자) “무사상성 내지 회색적 작품”으로 비판 받고 현저로 파견 나가 있을 무렵, 시인 백석은 북한의 주류 아동문학과는 다른 방향에서 창작을 하고자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동화시집 『집게네 네

54) 두전하,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서울: 소명출판, 2019), 281~282쪽.

55) 이재철, 『남북아동문학연구』, 234쪽.

56)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파주: 청동거울, 2012), 384쪽.

형제』(1957)를 쓰고 있었다. 오늘날 백석의 『집계네 네 형제』는 남한에서 여러 판으로 거듭 출간되어 아이들에게 환영받는다. 그에 비해 윤복진의 『시냇물』은 출간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시인의 몫인 것이다.<sup>57)</sup>

원종찬은 윤복진이 북한에서 발표한 작품을 ‘역군은’식 발상을 보이는 천편일률적인 작품으로 보았다. 하지만 ‘역군은’식 발상을 보이는 조선왕조의 많은 작품들이 민족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역군은’식 발상을 보이는 작품을 곧 천편일률적인 작품으로 규정할 이유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역군은’식 발상을 보이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민족문학사에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다. ‘역군은’식 발상을 보이는 북한 작품을 곧 천편일률적인 작품으로 규정하면, 북한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뿐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민족문학사에 자리매김하게 하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야말로 분단시대 아동문학을 극복하는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연구방법론이다. 그리고 백석의 『집계네 네 형제』는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작품이지만, 그것 역시 김일성-김정일주의·주체아동문학론이 확립되기 이전의 시대적 산물임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주체아동문학론을 따르지 않는 작품은 발표될 수 없다. 원종찬은 “정치적 질곡으로부터 문학이 구원되는 길은 작가의 자유정신 여하에 달려 있을 것”<sup>58)</sup>이라 하였으나, 북한 작가가 아무리 자유정신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의 창작은 체제의 제약을 넘을 수 없다. 『집계네 네 형제』가 남한에서는 환영받지만, 북한에서는 잊혀졌다. 이와 같

---

57) 원종찬, 위의 책, 371쪽.

58) 원종찬, 위의 책, 385쪽.

은 현실에서 북한 작가에게 윤복진이 아닌 백석을 모범으로 삼으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에서 생각하는 자유가 상이한 만큼, 남한과 북한에서 생각하는 자유정신도 상이할 것이다. 북한 작가가 생각하는 자유정신은 제국주의에 맞서 사회주의 조국의 자주성을 지키고, 혁명의 구심점이 되어 주는 수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김성수는 1990년대 주체문학에 나타난 충효 이데올로기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수령론이 조선왕조의 충효 이데올로기가국일치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sup>59)</sup> 『주체문학론』에서는 문학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 대목에서 조선왕조의 충효 이데올로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으며 그 근저에는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아버지로 모시고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혈연적인 관계가 놓여 있다.<sup>60)</sup>

작품에서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를 구현하는 문제는 수령, 당, 대중을 다같이 형상하는가 따로따로 형상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혼연일체를 이룬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관계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있다.<sup>61)</sup>

---

59) 김성수, “1990년대 주체문학에 나타난 충효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5권 1호(2002).

60)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20쪽.

61) 김정일, 위의 책, 121쪽.

아동문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은혜로운 당을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어린이들의 충성과 효성을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sup>62)</sup>

“충성과 효성”·“혈연적인 관계”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통하여, 주체문학론이 조선왕조의 충효 이데올로기·가국일치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주자학적 요소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주체문학론이 확립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앞선 시기의 아동문학은 일련의 제한성을 나타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론-인용자) 시기에 와서도 아동문학은 작품의 주인공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전형화하는 사업을 잘하지 못함으로써 일련의 제한성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의 성격창조에서 계급의식으로서의 성장과정은 보여주고있으나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의 최고의 대변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다하는 충성심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지 못한것이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를 키울것을 지향하는 주체시대 아동문학의 비할바 없는 혁신적면모를 그대로 말하여준다.<sup>63)</sup>

일련의 제한성은 바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다하는 충성심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지 못한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제한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를 키울것을 지향”하는 주체

---

62) 김정일, 위의 책, 251쪽.

63) 정룡진,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평양: 문예출판사, 1991), 77쪽.

아동문학의 혁신적 면모에 의하여 극복되었다고 평가된다. 주체아동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즉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끝없이 “충성과 효성”을 바치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아동문학론의 제한성을 극복한 혁신적 면모에 의하여 주체아동문학론은 주체시대의 요구를 가장 철저히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아동문학으로 규정된다.

새 세대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께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성다하며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 투쟁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것, 이것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아동문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식 아동문학의 새로운 혁신적면모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아동문학이 주체시대의 요구를 가장 철저히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아동문학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sup>64)</sup>

어린이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혁명관을 바로세워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아동문학의 기본임무로 내세우는것은 우리 아동문학이 후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도로 된다.<sup>65)</sup>

위의 인용문들은 차례로 북한 아동문학의 사명과 기본임무를 밝히고 있다. 주자학적 문학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작품에 담는데 주력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아동문학은 아동 독자가 수령에

---

64) 장영·리연호, 『동심과 아동문학창작』(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9~10쪽.

65) 장영·리연호, 위의 책, 10쪽.

게 충성을 다하는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리고 아동 독자를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혁명관을 바로 세우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북한 아동문학의 기본임무이다. 확고한 사명과 기본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 아동문학은 ‘도문일치’·‘도본문말’을 원칙으로 하는 주자학적 문학과 흡사하다. 이렇듯 주체아동문학에서 주자학적 요소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주자학적 접근법’은 유용한 북한 아동문학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주자학적 접근법’으로 북한 아동문학을 읽음으로써, ‘주자학적 접근법’이 유용한 북한 아동문학 연구방법론임을 증명할 것이다.

#### 4. ‘주자학적 접근법’으로 읽는 북한 아동문학

앞 장에서는 다른 시대·다른 체제의 정치적 사상·이념을 반영하고 있어도 모두 우리 민족문학의 일부라는 전제로, 다른 시대·다른 체제의 문학 작품을 읽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주자학적 문학과 주체아동문학의 유사성을 살펴보았으며, 주체아동문학에서 주자학적 요소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주자학적 접근법’으로 북한 아동문학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실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셋! 조용해 갈새야  
노래일랑 좀 참으렴  
같이일랑 사랑대지 마

저기 언제우에 앉은 소녀  
두눈은 새별같고  
입술은야 빨간 앵두

끝없이 펼쳐진 갈밭으로  
지혜로운 눈빛 비껴간다  
예쁜 입 방긋 불우물 움푹

숫! 조용해 갈새야  
무슨 생각하나  
물어볼 생각일랑 아예 말아

저 애는야 비단섬마을 최우등생 순이  
갈숲은 바다처럼 설레이는데  
고운 꿈을 꾸단다  
눈을 뜨고 꾸는 꿈...

휘-휘 반짝이는 은빛가루 뿌리면  
설레이는 갈밭이 그대로  
필필이 고운 비단되는 꿈  
원수님 오셨던 그날부터  
가슴속에 소중한 것들은 꿈

놀라웁다 저도 몰래 갈갈대지 마  
갈잎일랑 사랑사랑 흔들지도 마  
고운 꿈을 깨울라 숫 조용히!  
축하노래 꽃노래나 마련해두렴

— 최성희, 「갈새야 숫! 조용해」 전문<sup>66)</sup>

---

66) 최성희, 「갈새야 숫! 조용해」, 『아동문학』, 9월호(2018), 29쪽.

『아동문학』 2018년 9월호에 수록된 최성희의 동시 「갈새야 쫓! 조용해」는 7연 25행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5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비단섬이다. 비단섬은 중국과 인접한 도서 지방인 평안북도 신도군을 일컫는다.<sup>67)</sup> 작품을 이해하려면 신도군이 갈에 의한 화학섬유 생산을 활성화하려고 꾸려진 대규모의 갈 생산기지라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6연의 “원수님 오셨던 그날”은 김정은이 신도군 갈종합농장 갈1분장 14포전을 현지지도한 2018년 6월 29일을 뜻한다. 작품의 주제는 “신도군을 주체적인 화학섬유원료기지로 튼튼히 꾸리고 갈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sup>68)</sup>이라는 당의 정책이다. 많은 남한 독자들이 작품의 주제가 당의 정책이라는 사실을 이질적으로 느낄 것이다. 또한 “원수님 오셨던 그날”이라는 구절을 ‘역군은’ 표현처럼 여길 것이다. 체제가 상이한 만큼, 이질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을 “이데올로기 주입식 교훈주의 경향”이자 “아동을 대상화·식민화하는 논리”<sup>69)</sup>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에 그친다면, 작품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잃게 된다. 조선왕조의 작품이 주자학적 가치관을 담는 그릇 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이

67) “조국의 서북단에 자리잡고있는 신도군은 수수천년 썰물에 씻기여 버림받던 이름도 없는 무명평을 인민의 행복을 위한 화학섬유원료기지로 전변시킬 구상을 안으시고 100여리 제방을 쌓아 섬들을 하나로 련결하여 수천정보의 갈밭을 조성하는 웅대한 대자연개조전투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몸소 비단섬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갈바다 설레이는 원료기지로 전변된 영광의 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8년 6월 30일.

68) 위의 신문, 2018년 6월 30일.

69)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385쪽.

작품 역시 김일성·김정일주의적 가치관·당과 국가의 정책을 담는 그릇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작품의 화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 이야기를 건네는 대상이 관찰 대상인 순이가 아니라 갈새라는 점이 흥미롭다. 화자는 갈새에게 언제(堰堤) 위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순이를 방해하지 말라고 타이른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 만큼 화자가 순이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더 나아가 짐승인 갈새의 내면까지 들여다 보고 있다는 동화적 상상력이 아동 독자의 흥미를 자극할 만하다. 동화적 상상력은 “설레이는 갈밭이 그대로/ 필필이 고운 비단되는” 순이의 꿈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두드러진다. 당의 정책을 담고 있는 대목이기는 하나, 환상적으로 펼쳐지는 시각적 심상은 충분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7연 1행의 ‘갈갈대대’라는 의성어는 갈새·갈잎·갈숲 등의 소재와 음성학적 조화를 이루어 재미를 더하고, 7연 2행의 “갈잎일랑 사랑살랑”이라는 의태어는 운율을 형성하여 읽는 맛을 더한다. 이렇듯 작품이 특정한 가치관이나 정책을 담는 그릇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릇의 모양이나 장식(작품의 구성이나 표현) 등에 주목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가에 총총 별이 열린 밤  
나는야 연필 쥐고 공부하다가  
그만에야 깜박 잠이 소르르  
꿈나라로 훨훨 날아갔어요

은하수 흐르는 별나라에서  
수학문제 척척 풀고푸는데  
내 연필 책상우에 곧추 서더니

하늘로 씨-잉 높이 날겠지

필갑집에 나란히 누워 잠자던  
빨간색 파란색 연필형제들  
저저마다 은빛위성이 되어  
하늘로 줄지어 날아가겠지

《광명성2호》 날아오른 그날부터  
자나깨나 가슴속에 안고사는 꿈  
하늘이 비좁도록 씩씩릴테야  
우리의 위성으로 뒤덮을테야

아, 머지않아 펼쳐질  
꿈아닌 나의 《꿈》!

- 우광영, 「나의 《꿈》」 전문<sup>70)</sup>

『아동문학』 2009년 9월호에 수록된 우광영의 동시 「나의 《꿈》」은 5연 18행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주자학적 문학론에서 문학은 주자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처럼, 주체문학론에서 문학은 김일성-김정일 주의와 일치하여야 한다. 주체문학론에서는 작품에 담긴 김일성-김정일주의적 가치관을 ‘종자’라 하는데, 이는 주자학적 문학론의 ‘도문일치’ 중에서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연 1행의 “광명성 2호”라는 시어가 표상하는 과학기술중시정책<sup>71)</sup>이 이 작품의 ‘종자’이

70) 우광영, 「나의 《꿈》」, 『아동문학』, 9월호(2009), 28쪽.

71) 과학기술중시정책에 관하여서는 강호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 1』(서울: 알피 사이언스, 2016);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I』(서울: 선인, 2007) 참고.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반영한 아동문학에 관하여서는 마성은,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아동문학의 동향,” 『우리어문연구』, 제48집(2014); 마성은, “북측 동시와

다. 주체문학론의 ‘종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주자학적 문학론의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도본문말’의 원칙을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문학의 도구화·독자의 식민화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학은 시대의 산물인 만큼, 시대에 따른 문학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문학은 체제의 산물인 만큼, 체제에 따른 문학의 기능과 역할도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념에 젖어 있는 미술작품을 논하면서 순수한 ‘미술적’ 요소만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미술적 요소’를 애써 외면하고 폄하하려는 의도는 배제되어야 한다. 논거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미술적 요소를 이념에 대입시켜 작품을 분석한다면 작품은 이념의 종이 되어, 결과적으로 순수한 미적 에너지마저 질식시켜버리는 참담함을 나는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sup>72)</sup>

조선 화가와 외부 화가의 상상력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조선 화가들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상상력의 상이점 때문에 우리 인식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성인이라면. 외부인들이 조선의 특수 환경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이해한다면, 조선은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후엔 그 다름을 즐기면 된다.<sup>73)</sup>

위의 인용문에서 ‘미술’을 ‘문학’으로 바꾸고 ‘화가’를 ‘작가’로 바

---

2018년 4월전원회의”; 마성은, “북측의 변화가 반영된 동요·동시”; 마성은, “선군 시대 북한아동문학 연구”(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참고.

72) 문범강,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서울: 서울셀렉션, 2018), 109쪽.

73) 문범강, 위의 책, 132쪽.

꾸면, 북한 문학 연구의 전제로 삼을 만하다. ‘도본문말’의 원칙에서는 구성이나 표현을 주제의 지엽으로 간주하였으나, 같은 주제의 작품들 중에서도 구성이나 표현에 따라 문학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주체문학론에서도 구성이나 표현은 ‘종자’의 지엽이다. 하지만 ‘도본문말’의 원칙 때문에 조선왕조의 작품을 모두 부정하지 않았듯이, ‘종자’ 때문에 북한의 작품을 모두 부정해서도 안 된다. ‘종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작품의 구성이나 표현에 주목하여 연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 작품 역시 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동화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화자는 꿈속에서 “은하수 흐르는 별나라”에 있다. 중화문명권에서 고대부터 사용된 ‘은하(銀河)’라는 단어는 은하계를 강(河)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학적이다. 중국고대민간4대전설 중 하나인 「우랑직녀(牛郎织女)」를 소재로 시성(詩聖) 두보(杜甫, 712~770)가 오언고시(五言古詩) 「견우직녀(牽牛织女)」를 지은 것을 비롯하여, ‘은하’는 시 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고전문학 속의 ‘은하’가 낭만적 성격을 드러내는 소재라면, 이 작품의 ‘은하수’는 동화적 성격을 넘어 과학환상문학적 성격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은하수 흐르는 별나라”는 낭만적으로 묘사되기보다, 과학환상문학적 상상력이 펼쳐지는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된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하였다. 《광명성-2》호는 운반로켓 《은하-2》호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책상 위에 곧추선 연필은 흡사 운반로켓 《은하-2》호를 연상하게 한다. “은하수”라는 시어는 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을 2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은하수 흐르는 별나라”가 아닌 “내 연필 책상위에 곧추 서더니/ 하늘로 씨잉 높이 날겠지”라는 대목이다. 아동 독자에게 연필과 필갑집(필

통)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소재이다. 이 친숙한 소재를 과학환상문학적 상상력과 결합시킨 것은 아동 독자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 “필갑집에 나란히 누워 잠자던/ 빨간색 과란색 연필 형제들”이 그대로 하늘로 날아오른다면 동화적 상상력이라 할 텐데, “저저마다 은빛위성이 되어/ 하늘로 줄지어 날아”가는 것은 과학환상문학적 상상력이라 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화자의 꿈에서 벌어진 광경으로 설정한 만큼, 이 작품을 과학환상문학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동 독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소재인 연필과 필갑집을 과학환상문학적 상상력과 결합시킴으로써, 평범한 동시를 넘어서는 흥미진진한 작품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작품이 당과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이나 상상력에 주목하여 연구한다면 작품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

## 5. ‘주자학적 접근법’의 의의

본고는 북한 체제, 나아가 북한 아동문학을 읽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주자학적 접근법’이라 명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을 유교적 ‘가족국가’나 ‘신유교국가’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하는 ‘주자학적 접근법’의 목적은 북한을 ‘주자학 국가’로 규정하거나, 북한 문학을 ‘근대 미달의 문학’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북한에서 주자학적 요소를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주자학적 접근법’이 무척 유용한 북한 연구방법론이라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즉 ‘주자학적 접근법’은 편견 없이 북한의 실상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다른 시대·다른 체제의 작품을 연구할 때, 연구자가 사는 시대·연구자가 사는 체제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면 작품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 조선왕조의 작품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북한의 작품은 그 체제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자는 마땅히 이를 전제로 해야 하며, 자신의 기준에 따라 독단적으로 다른 시대·다른 체제의 작품이 갖는 의의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조선왕조의 작품이 주자학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듯이, 북한의 작품은 김일성-김정일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왕조의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역군은’ 표현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것 때문에 작품의 가치와 의의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듯이, 북한의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 표현·당과 국가의 정책을 반영한 표현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것 때문에 작품의 가치와 의의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북한 아동문학의 사명은 아동 독자가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아동문학의 기본임무는 아동 독자를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혁명관을 바로 세우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확고한 사명과 기본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 아동문학은 ‘도문일치’·‘도본문말’을 원칙으로 하는 주자학적 문학과 흡사하다. 이렇듯 주체아동문학에서 주자학적 요소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주자학적 접근법’은 유용한 북한 아동문학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다.

‘역군은’ 표현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조선왕조의 작품을 연구하는 방법이 다양하듯이, 김일성-김정일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 표현·당과

국가의 정책을 반영한 표현이 공식처럼 나타나는 북한의 작품을 연구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 작품의 수령형상 표현에 주목하거나, 작품에 나타난 수령의 특성을 고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체제 차이 때문에 수령형상 표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령형상 표현을 ‘역군은’ 표현처럼 다른 체제에서 비롯된 공식으로 보고, 이외의 요소들에 주목하여 연구하면 된다. 작품이 특정한 가치관이나 정책을 담는 그릇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릇의 모양이나 장식(작품의 구성이나 표현) 등에 주목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주제의 작품들 중에서도 구성이나 표현에 따라 문학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작품이 당과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이나 상상력에 주목하여 연구한다면 작품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자학적 접근법’으로 북한 아동문학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실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문학의 여러 갈래 중 동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는 북한 아동문학에서 정치적·시대적 양상을 동시적(同時的)으로 묘사하는 데 있어 가장 민첩함을 보이는 갈래이기 때문에,<sup>74)</sup> “정치적 사상·이념에 의해 아주 깊이 침윤되어”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체문학론의 ‘종자’라는 개념을 주자학적 문학론의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작품의 구성·표현·상상력 등에 주목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동문학의 여러 갈래 중 정치적·시대적 양상이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동시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 문학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정치적·시대적

---

74) 마성은, “화장하는 여성과 시대 풍자,” 남북문학예술연구회 엮음, 『감각의 갱신, 화장하는 인민: 김정은 시대와 북한 문학예술의 지향 - 북한문학예술의 지형도 7』(서울: 살림터, 2020), 246쪽.

양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동화·우화·과학환상문학 등을 연구하는 것은 한결 수월할 것이다.

맹자가 말하였다. “물고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며, 웅장도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겸하지 못한다면 물고기를 놓고, 웅장을 취할 것이다. 사는 것도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며, 의도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겸하지 못한다면 사는 것을 놓고, 의를 취할 것이다.”<sup>75)</sup>

맹자는 모순 상황에서 선택할 때, 두 가지를 겸하여 얻지 못할 경우라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연구자는 다른 시대·다른 체제의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 자신의 가치관에 합당한 것과 다른 시대·다른 체제의 가치관에 합당한 것을 모두 발견하려 한다. 그러나 두 가지를 겸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가치관에 합당한 것을 놓고, 다른 시대·다른 체제의 가치관에 합당한 것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통일시대에 요구되는 북한 이동문학 연구방법론은 북한 이동문학을 연구함으로써 자본·민주주의 체제의 이동문학, 나아가 자본·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방법론일 수 없다. 북한 문학이 체제에 종속되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자본·민주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방법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통일시대에 요구되는 북한 이동문학 연구방법론은 북한 이동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무엇을 발견해야 할 것인가.

입은 맛에 있어 똑같이 즐기는 것이 있으며, 귀는 소리에 있어 똑같이 듣는 것이 있으며, 눈은 색에 있어 똑같이 아름다워 하는 것이 있으니,

---

75) 『맹자』, 유교문화연구소 옮김(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789쪽.

마음에 이르러서는 유독 똑같이 그러한 것이 없겠는가?<sup>76)</sup>

맹자는 사람의 마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다른 시대·다른 체제의 문학이 다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작품 속 화자·등장인물의 마음에서는 얼마든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주지학적 접근법’은 북한 작품 속 화자·등장인물의 마음, 나아가 북한 작가의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주지학적 접근법’은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왜곡과 편견을 걷어 내고, 북한의 실상부터 마음까지 파악·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라 하겠다.

■ 접수: 7월 2일 / 수정: 7월 31일 / 채택: 8월 5일

---

76) 위의 책, 776~777쪽.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_\_\_\_\_, 『김정일선집』, 제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_\_\_\_\_,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_\_\_\_\_,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장영·리연호, 『동심과 아동문학창작』(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정룡진,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평양: 문예출판사, 1991).

#### 2) 신문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18년 6월 30일.

#### 3) 기타

- 우광영, “나의 《꿈》,” 『아동문학』, 2009년 9월호.  
최성희, “갈새야 쫓! 조용해,” 『아동문학』, 2018년 9월호.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서울: 당대, 1996).  
강호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 1』(서울: 알피사이언스, 2016).  
\_\_\_\_\_,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I』(서울: 선인, 200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파주: 창비, 2013).

-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서울: 책세상, 2001).
- 남북문학예술연구회, 『감각의 갱신, 화장하는 인민: 김정은 시대와 북한 문학예술의 지향-북한문학예술의 지형도 7』(서울: 살림터, 2020).
-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달의 양식』(서울: 경진, 2011).
- 『논어』, 유교문화연구소 옮김(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2005).
-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구인모 옮김(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두전하, 『한·중·일 프레타리아 아동문학』(서울: 소명출판, 2019).
- 『맹자』, 유교문화연구소 옮김(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2006).
- 문범강,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서울: 서울셀렉션, 2018).
- 벨, 대니얼 A.(Daniel A. Bell),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김기협 옮김(파주: 서해문집, 2017).
- 세제르, 에메(Aimé Césaire),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 이석호 옮김(서울: 그린비, 2011).
-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서울: 당대, 1995).
-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서울: 유니스토리, 2013).
-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파주: 청동거울, 2012).
- 유승원, 『사대부시대의 사회사』(서울: 역사비평사, 2020).
- 이문웅, 『북한 정치문화의 형성 그 특징』(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7).
-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북한영화분석을 중심으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이재철, 『남북아동문학연구』(서울: 박이정, 2007).
- 이태진 위음,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서울: 범조사, 1986).
- 이태진·김백철 위음, 『조선후기 탕평정치 재조명』 上·下(서울: 태학사, 2011).
- 정옥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서울: 현암사, 2006).
- \_\_\_\_\_, 『조선시대 문화사』 상·하(서울: 일지사, 2007).
- \_\_\_\_\_, 『조선후기 문학사상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_\_\_\_\_,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서울: 일지사, 2010).
- \_\_\_\_\_, 『지식기반 문화대국 조선』(파주: 돌베개, 2012).
- 최원식, 『문학』(서울: 소화, 2012).

2) 논문

- 강정인, “북한 연구방법론: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권(1993), 1~54쪽.
- 강진웅, “북한의 가족국가 체제의 형성: 국가와 가족, 유교문화의 정치적 변용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36호(2001), 323~346쪽.
- 고순희, “18세기 정치현실과 가사문학: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78집(2002), 185~210쪽.
- 김기주, “다카하시 도오루의 조선 유학관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논의,” 『오늘의 동양사상』, 제13호(2005), 209~224쪽.
- 김상진, “사시가계 시조의 맥락과 노·찾·사의 <사계>: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48집(2018), 165~192쪽.
- \_\_\_\_\_, “시조에 나타난 ‘임’을 부르는 목소리,” 『우리문학연구』, 제30집(2010), 113~143쪽.
- 김성기, “사대부 가사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 『한글』, 통권 214호(1991), 125~148쪽.
- 김성보, “북한의 주체사상·유일체제와 유교적 전통의 상호관계,” 『사학연구』, 제61호(2000), 234~252쪽.
- 김성수, “1990년대 주체문학에 나타난 충효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5권 1호(2002), 207~236쪽.
- 마성은,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아동문학의 동향,” 『우리어문연구』, 제48집(2014), 289~318쪽.
- \_\_\_\_\_, “북측 동시와 2018년 4월전원회의,” 『스토리엔이미지텔링』, 제17집(2019), 93~129쪽.
- \_\_\_\_\_, “북측의 변화가 반영된 동요·동시: 2018년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64집(2019), 17~45쪽.
- \_\_\_\_\_, “북한 아동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 『현대북한연구』, 제15권 2호(2012), 99~126쪽.
- \_\_\_\_\_, “선군시대 북한아동문학 연구”(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_\_\_\_\_,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가능성: 「토끼와 원숭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2018), 343~368쪽.

- \_\_\_\_\_,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가능성 (2): 1920년대 동요·동시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4호(2019), 143~166쪽.
-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19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현대북한연구』, 창간호(1998), 65~103쪽.
- 양희찬, “맹사성 <강호사시가>의 짜임새,” 『시조학논총』, 제21집(2004), 143~164쪽.
- 양희철, “<강호사시가>와 <사시가>의 결속과 구조,” 『청대학술논집』, 특집호(2015), 43~63쪽.
- 오석원, “우암 송시열의 의리사상,”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3집(2008), 63~90쪽.
- 유덕상, “정조의 송시열 추승(追崇) 연구”(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윤인현, “송강 정철의 한시에 나타난 용사와 점화,” 『대동한문학』, 제42집(2015), 95~127쪽.
- \_\_\_\_\_, “송강 정철의 한시에 나타난 작법과 유자의 자연관,” 『한국고전연구』, 제31집(2015), 171~210쪽.
- 이상하, “관도·재도·도문일치의 상호관계 및 개념·성격 재고,” 『한국한문학연구』, 제40집(2007), 501~527쪽.
- 이성환, “조선 총독부의 지배 정책과 다카하시 도오루,” 『오늘의 동양사상』, 제13호(2005), 236~247쪽.
- 이재룡, “조선 후기 봉당정치의 역사적 의의: 정당정치에의 원용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 『동양사회사상』, 제19집(2009), 135~164쪽.
- 이종훈, “북한 도덕교육에서 유교윤리의 비판과 수용,” 『통일전략』, 제8권 1호(2008), 217~249쪽.
- 이태진, “당과성론 비판,” 『한국사 시민강좌』, 제1집(1987), 53~69쪽.
- 이현경, “김일성, 김정일 부자 이상화를 위한 유교적 정치사회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8권 1호(2002), 89~113쪽.
- 이현자, “사시가가 연시조에 나타난 강호자연 인식,” 『시조학논총』, 제17집(2001), 252~285쪽.
- 이현출, “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과 현대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2002), 115~134쪽.
- 이형성, “다카하시 도오루의 조선 성리학 연구 영향과 새로운 모색,” 『오늘의 동

- 양사상』, 제13호(2005), 171~193쪽.
- 임주탁, “조선시대 사족층의 시조와 일상성 담론,” 『한국시가연구』, 제29집(2010), 37~66쪽.
- 전재강,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 『시조학논총』, 제21집(2004), 207~239쪽.
- 정옥자, “정조와 정조대 제반정책,” 『서울학연구』, 제51호(2013), 1~24쪽.
- 조성래, “사시가가 시조의 표현문체: 강호사시가와 사시가,” 『인문과학논집』, 제23집(2001), 167~190쪽.
- 진원, “주자의 소학론과 한국·중국에서의 변용”(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최상은, “한중 연군문학 비교 연구: 굴원의 <이소>와 정철의 <사미인곡>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29집(2010), 129~149쪽.
- 최영성, “다카하시 도오루의 한국 유학관 비판,” 『오늘의 동양사상』, 제13호(2005), 150~170쪽.
- 최재현, “북한사회이념속의 전통적 요소: 김일성저작집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14권(1988), 97~119쪽.
- 최현재,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에 나타난 연군의식 비교 고찰,” 『우리말글』, 제48집(2010), 177~202쪽.
- 황성모, “유교적 측면에서의 충효사상,” 『북한』, 통권 78호(1978), 146~154쪽.

## The Zhūzǐxué Approach—DPRK Children’s Literature Research Methodology

Ma, Sungeun (Zhejiang Normal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 new research methodology called ‘the Zhūzǐxué approach’ for reading the DPRK system, specifically its children’s literature. ‘The Zhūzǐxué approach’ is not a research methodology that seeks to define the DPRK per se, but rather to understand it. Just as the works of the Choson Dynasty reflect Zhūzǐxué values, works of the DPRK reflect Kimilsungist–Kimjongilist values. As the value and meaning of a work of the Choson Dynasty should not be denied or disparaged because of its expression of Zhūzǐxué values, when evaluating a work of the DPRK one should not deny or denigrate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work because it contains expressions that reflect Kimilsungist–Kimjongilist values and polici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and the state. If one acknowledges that a work reflects the policies of the WPK and the state, and if one pays attention to its expressions or imagination power, one can find the true meaning

and value of the work.

Keywords: The Zhūzǐxué approach, DPRK children's literature, research methodology, DPRK system, children's literature in the unification era